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속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2월 2일 (토) 제 1716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복음의 역수출 현장을 가다!

이코노미스트, 100년 전과 달라진 선교 지형 변화 현장 심층 보도

“복음의 역수출(Mission in reverse)”은 이제 지구촌 선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가톨릭 신부인 알리 은나에메카는 캐나다 퀘벡 주 세틸에서 570km 떨어진 외딴 탄광 마을 셰퍼빌 사이를 2주에 한 번씩 오간다. 기차로 공공 열여섯은 땅을 달려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지만 은나에메카 신부는 외딴 산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크리스천 선교사들이 세계 구석구석의 외딴 마을을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그들이 찾아다닌 마을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위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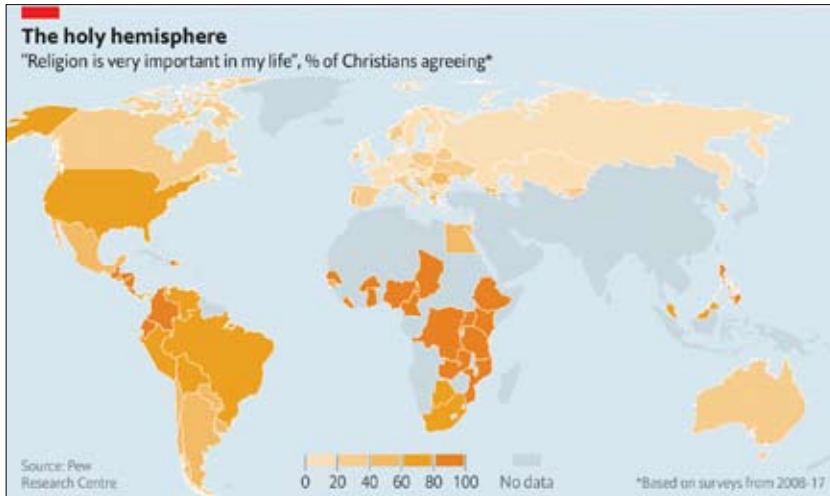
있고, 선교사의 대부분이 서구 열강 제국 출신이었다면 이제는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 다르다. 이제는 가난한 국가에서 신앙심이 더 높다. 부국과 빈국 사이 신앙심 격차가 커지면서, 빈국의 선교사들은 선진국의 부자들을 지옥불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은나에메카 신부도 그 중 한 사람이다 (Missionaries from the global south try to save the godless West: Preachers from poor countries are targeting the rich world)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선교사의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한 토드 존슨은 선교사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완전한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이 자료는 최소한 2년 이상 활동한 선교사들만을 세고 있지만, 열흘씩 “단기 해외 선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곳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한 자료에서도 경향은 뚜렷하다. 한마디로, 비서구 국가 출신의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선교사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반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대륙 출신 선교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32% 증가했고, 한국 출신의 선교사는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순이었다.

가장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아프리카와 미주 대륙 출신인 경우가 많아



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 출신의 선교사가 많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10년에만 해도 전 세계 크리스천의 3분의 2가 유럽에, 4분의 1이 미주 대륙에 살고 있었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1.4%에 불과했다. 한 세기가 지나자 37%가 미주 대륙에, 24%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고향을 제외하면 은나에메카는 선교사의 전형에 가까운 인물이다. 1816년 전도를 목표로 설립된 카톨릭 성모마리아 선교사역회(Missionary Oblates of Mary Immaculate) 소속이며, 카메룬과 이탈리아에서 10년간 성직자 교육을 받았다. 과거 서구

의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지 주민들”과 4년 간 함께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개종한 사람들의 자손이다. 중간에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 둔 사람들도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짧게, 많아야 수 년 정도 활동하며, 특별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지원 정도나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활동하는 독립(자립) 선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독자적 선교사들의 수도 무려 4만 명에 달한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먼저 건너 가셔서...”

장영춘 목사 이임, 김성국 목사 취임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가 지난 26일 저녁 6시 옥스포스 팰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역 교계 목회자 및 단체,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이임하는 장영춘 목사를 회고하고 취임하는 김성국 목사를 격려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임사, 취임사 및 화보 16면]

예배는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사화로 글로리아싱어즈(퀸즈장로교회)의 서창(주기도문)에 이어 개회선언, 기도 김현인 목사(남가주든한교회), 성경봉독(신 31:1-8), 설교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회답연주 그레이스 트리오, 이임사 장영춘 목사, 영상(신문사 소개), 취임사 김성국 목사, 축하영

상 황의영 목사(SBM총재), 축사 조명환 목사(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부회장), 축하영상 김승욱 목사(한 지역 교계 목회자 및 단체,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이임하는 장영춘 목사를 회고하고 취임하는 김성국 목사를 격려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임사, 취임사 및 화보 16면]

김현인 목사는 지금까지 장영춘 목사님을 발행인으로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김성국 새 발행인을 하신다면 능력으로 불드시고 함께 하며 지혜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취임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CAL 미주 26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Called to Awaken the Laity

날짜 2019년 4월 29일 (월) - 5월 4일 (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문의 (714) 635-3000 / dmmi@sarang.com

일반 등록비 \$475 (호텔/식사 포함)
사전(할인) 등록비 \$420 (2019년 3월 18일 (월)까지 등록시 적용)
특별 할인 부부동반(\$100 할인)

등록 마감 2019년 4월 6일(토)
등록 방법 www.dmi.sarang.com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 부교역자의 경우 담임목회자가 세미나를 이미 수료하였거나 이번 세미나에 동반 참석시에만 등록 가능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POSSIBLE

남가주 사랑의교회 국제제지훈련원

● 발행인 칼럼 ●

혁신(革新)을 위한 토양(土壤)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지난 1월 26일 본 신문 사 사장 이·취임예배가 있었다. 그 날 취임사에서 사장직(社長職) 수락(受諾)의 이유(理由), 또 그 사명으로 기록(記錄), 참여(參與), 그리고 혁신(革新)을 언급하였다. 혁신을 외면(外面)한다면 시대를 선도(先導)할 언론의 기능에 부합(符合)치 않기에 그것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기록 언론에 필요한 것은 혁신정신(革新精神)이다. 아니 모든 분야에 절실(切實)한 것이 혁신이다. 혁신에는 실패(失敗)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挑戰), 반대(反對)를 힘겨워하지 않는 용기(勇氣), 전통(傳統)을 무시하지 않는 자유(自由), 다양(多樣)함에 휘둘리지 않는 방향(方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혁신은 그 기대하는 열매에 걸 맞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토양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役割)을 한다. 식물은 그곳에 담겨진 양분(營養分)을 흡수하며 자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옥토(沃土)가 있는가하면 길가, 가시 밭, 자갈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말씀으로 토양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자면 성숙토(成熟土)와 미성숙토(未成熟土)가 있다. 땅의 크기가 아닌 그 땅의 토양이 중요하다. 성숙토에서는 무엇이든지 자라겠지만 미성숙토에서는 그 무엇이 자라겠는가. 소비자(消費者)에게 보다 안전과 편리함을 주는 우버(Uber) 택시가 어느 토양에서는 쑥쑥 잘 성장하고 또 다른 토양에서는 발도 못 붙인다. 세계 최대의 혁신 장소(場所) 두 곳을 꼽으라면 미서부(美西部) 지역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Tel Aviv)이다. 전자(前者)의 토양은 거대한 자본(資本)과 다양한 사고(思考)이고 후자(後者)의 토양은 집약(集約)된 기술(技術)과 장구(長久)한 역사(歷史)라 할 수 있다. 둘 다 나를 의미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혁신 도시에서 생성(生成)되고 있는 열매들이 현대의 삶을 경이롭게 만들고 미래를 쉽게 예측(豫測)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토양이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혁신은 어느 토양에 심겨져 있는가. 그 토양 위에 이 시대에 기여(寄與)할 영적 혁신은 과연 가능한가. 영적 혁신의 토양은 다름 아닌 신뢰(信賴)이다. 혁신을 외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혁신의 길은 요원(遼遠)하다. 혁신의 또 다른 토양은 배움이다. 거대한 자본도 없고 장구한 역사가 없어도 겸비(謙卑)한 배움이 있다면 그 부족을 상당히 상쇄(相殺)할 수 있다. 혁신의 토양으로 관계를 뺄 수 없다. 풍성한 관계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케 하는 토양이다. 혁신의 토양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스템의 변화이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혁신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시스템의 큰 변화가 있었다. 곧 모세 일인(一人) 지도자 체제에서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등 집단(集團) 지도자 체제로 바꾸었다. 시스템을 바꾸고 보니 그들의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오지의 첨단(尖端) 도시가 부럽지 않은 자리였다. 이런 토양들 위에 혁신의 아이콘이 보일 것이고,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무한(無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어른 같지 않은 성인 밀레니엄 세대, 훈련 필요!

뉴스위크, 부모 과잉사랑으로 교육 부족... '영원한 청소년' 경고

지난해 말 미국에선 밀레니엄 세대를 '어덜팅(adulting)'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현상이 주목을 끌었다. '어덜팅'이라는 표현은 농담 비슷하게 시작됐다. 밀레니엄 세대가 유치하지 않고 나이에 맞게 하는 행동을 '어덜팅'이라고 했다. 성인답게 행동한다는 뜻

이다. 그러나 이제 밀레니엄 세대는 성인답게 행동하는 훈련이 확실히 필요할 정도다(Millennials Need Adulting Classes Because Their Parents Were Too Lazy To Teach Them To Be Adults).

CBS 뉴스에 의하면 배우 레이철 플레히어가 지난해 말 '어덜팅 스텝'을 공동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에선 바느질과 요리, 갈등 해결 같은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CBS 뉴스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된 배경을 두고 "많은 밀레니엄 세대가 어린 시절의 집을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선 18-34세의 3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10년 전과 비교하면 26%가 증가했다.

CBS 뉴스의 지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독립하지 않고



2015년 통계로 18-34세 사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34%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6% 증가했다.

두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녀에게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기도 길어졌다. 주변을 둘러보면 30대 전엔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상당히 많다. 특히 중산층과 상류층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성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 미국인도 상당수다. 싱글맘이 한 예다. 그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인답게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어덜팅 스텝'에 등록하지 않을 것

어덜팅 못하는 이유는 부모와 동거여부 보다는 교육 탓 자신의 삶에 책임지게 하는 고통이 더 나은 세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살면 거의 모든 뒷바라지를 받기 때문에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밥은 어떻게 짓는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추는지 잘 모를 수 있다. 부모에게 얹혀살면 의존성이 커져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쉽다.

하지만 그 논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부모와 함께 산다고 반드시 의존적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1940년 통계를 보면 그때도 25-29세의 30% 이상이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지금과 다른 점은 그들은 어린 시절의 집을 떠나지 않아서 '어덜팅'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알아서 성인답게 행동했다는 뜻이다.

당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도우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교육했다. 따라서 요즘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지 않는 게 문제라기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양육 방식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흔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밀레니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성인답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 양육 면에서 예전보다 더 게을러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어덜팅 데이'를 정해 학생들에게 공과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 같은 기술을 가르칠 정도다.

이 문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생겨났다. '위대한 세대(the Greatest Generation, 1915년-1927년생 미국인으로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성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후 미국의 전후 부흥을 이끌어 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 이래 미국의 성인은 갈수록 성인답지 않아졌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실제 성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성인답게' 행동하는 법을 익혔다.

1940년 당시 초혼의 평균 나이는 남성이 24세, 여성이 21세였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28세, 여성이 26세에 처

음 결혼한다. 몇 세대 전엔 남녀 모두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또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는 조부모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지만 진정한 인생과 사회생활은 그들보다 훨씬 더 늦게 경험한다.

아울러 과거엔 부부가 훨씬 젊은 나이에 자녀를 여러 명 낳아 길렀다. 요즘 뉴욕시의 경우 여성의 초산 연령은 평균 31세다. 미국 전체로 확대하면 26.3세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요즘 부모는 자녀에게 '해프먼 나가서 일자리를 얻고 같이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 젊은이를 '성인답게' 행동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답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삶에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부모로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나도 어린 자녀가 두 명 있다. 그들이 앞으로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니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성인답게 행동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고.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계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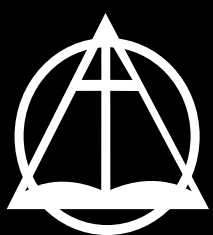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9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고시 일자: 2019년 5월 17(금) - 20(일)
- 고시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 제출고시 내용
- 구약 주해 - 에스겔 36:22-31
 - 신약 주해 - 히브리서 12:1-13
 - 논문 제목 - 개혁신주의 관점에서 “대제 신학”을 평가하라.
 - 설교 본문 - 마태복음 28:16-20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고시교시를 저를.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정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검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9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3회 총회기간(5월21일-24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7일-20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속을 예약 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울 것.
 -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Rev. Jae Hyun Han / Email: jhanrev@gmail.com
주소: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 전화: (831) 920-704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702) 296-9193, drjho@hotmail.com
-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복음의 역수출 현장을 가다!

(1면에서 계속)

예수께서 한 때 말했던 것처럼, 부자를 구원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에콰도르 출신의 20세 청년 에콰도르 리오스는 볼리비아에서 휴가 중이던 선교사들을 만난 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지금은 영국의 세속적이고 싸늘한 거리에서 18개월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도 많지만, 적어도 열 명이 상을 개종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의 역할은 개종 그 이상이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빈자와 고아들을 위한 의료 기관을 운영했다. 교육 역시 전도의 중요한 일부였다.

결국 우리 세대의 선교사들 역시 개종만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움을 강조한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마다가스카르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함께 활동하는 영국 내 선교사회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한다. 탄자니아 출신의 스티븐 음셀 선교사는 아일랜드와 케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탄자니아의 이웃국인 우간다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출신의 선교사들이 자신이 태어

난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패로 얼룩진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평화 구축 활동과 난민 캠프의 영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현지 출신의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다. 한 세기 전, 서구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에도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우간다 전통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며 구충제를 입에 털어 넣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작년에도 호텔 종업원을 폭행한 미국인 선교사가 우간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아프리카 출신의 성직자들은 현대 서구의 세속성을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서구의 변화에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한 세기만에 가장 "비종교적인" 대륙이 된 유럽의 변화는 놀랍다.

영국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한 선교사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길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상대가 크게 화를 내면 "내가 당신에게 무신론으로 개종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소리를 지른 일도 있었다.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는 가톨릭 국가 특유의 "형제애, 자매애"를 느끼지 못해 충격을 받았다

고도 털어놓을 정도다.

서구의 비종교성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기독교인의 기준이 조금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매주 교회에 가야 하지만,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는 인구가 10%에 불과한 독일에서, 그 수치가 89%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은나에메카는 "교회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빈국 출신의 선교사가 서구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얻는 것도 까다로운 문제다. 의심 많은 이민국이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 입국한다는 선교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으려 하는 이민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나에메카는 큰 조직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은 유럽과 미국의 이민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과거 서구의 선교사들이 험한 항해와 사자에게 먹힐 위험을 무릅쓰다면, 현대의 선교사들은 무려한 소수의 무신론자나 비자를 받기 위한 긴 줄에 굽하지 않고 서구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 가셔서..."

(1면에서 계속)

민경엽 목사는 "너보다 먼저 건너 가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교체를 언급하며 "세대교체는 항상 있어왔는데 모세가 위대한 것은 후계자를 세웠다는 것"이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므로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민 목사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미주에서 가장 건강한 신문 중 하나로 균형 잡힌 시각이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을 보면 세상이 보이고 교회가 보인다.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올바르게 보게 하는 시각이 느껴진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것은 공동체의 서포트였다. 우리도 새 발행인 김성국 목사님을 서포트함으로 다음세대를 이어 미

국을 살리고 한인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의영 목사는 "그간의 장 목사님의 편집발행에 대해 치하하고 새 발행인 취임을 축하한다"며 "미주크리스천신문이 계획한 일들이 더욱 발전해나가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조명환 목사는 본지가 해왔던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는 영적도전과 목회적 훈련을 겸한 교육이었고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은 유일하게 교회정보를 제공했다"며 "한인교회의 가이드로서 선교도구로 쓰임 받는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승욱 목사는 "지금까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해온 역할에 대해 감사와 축복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깨끗함"이라며 "그동안 해온 사역을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응원한다"고 말했다.

예배 후에는 송정명 목사의 만찬기도 후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로 단장한 웹사이트를 선보였다.

또 참석자 모두에게는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거'(His Finger)의 첫 번째 작품인 김성국 목사의 저서 '참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가 이날 참석자들에게 본지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증정됐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새 발행인을 맞아 그동안 중단됐던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와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등을 시대적 흐름에 맞춘 형태로 재개한다.

또 출판사 '히스핑거'를 통해 미주교계의 도서출판 발전에 매진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본지 취재부)

어른 같지 않은 성인 밀레니엄 세대, 훈련 필요!

(2면에서 계속)

아니면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그들의 응석을 받아줄 수도 있다. 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우리 자신도 나라에

의지하며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모두가 '성인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바쁠 것이다.

또 실질적인 성인이 되는 나이는

계속 연장될 것이다. 그러다가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사회엔 성인이 사라지고 청소년과 어린이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를 맡기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시론

SIGN CHURCH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세계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인 '오리아나 팔라치'는 헨리 키신저, 빌리 브란트, 무아마르 알 카다피, 야세르 아라파트, 인디라 간디, 구엔 반 티우, 골다 메이어, 덩샤오핑, 출피카르 알리 부토 등등 수많은 권력자들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파헤치는 인터뷰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깨달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녀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으로

부터 '베트남 전쟁은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라고 자백하게끔 하여 그가 평생 두고 오리아나 팔라치와 인터뷰한 것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멕시코 반정부 시위에서는 민간인을 향해 발포하는 정부군의 총에 맞아 병원에 있으면서, 멕시코 정부의 잔혹한 폭력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는 그녀에게 멕시코 경찰이 기사를 막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입을 막으려면, 내 혀를 잘라야 할 겁니다." 그녀의 독특한 인터뷰 스타일은 컬럼비아 대학에 '팔라치 스타일 인터뷰'라는 과목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강한 자에게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사람들은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오리아나 팔라치'가 상대했던 이들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그녀는 어찌된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보다 더 굉장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피온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마틴 루터 킹)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군림하려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피조물의 죄 된 본성, 한계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기에 자기 관리 차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한 구절을 시간이 날 때마다 되뇌이곤 합니다.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남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도무지 배우려고 안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힘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하여 남들을 이기려고만 듭니다. 그 힘이 도취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조금 더'라는 끝없는 욕망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히 배우려 합니다. 힘이 생길수록 나 자신과 싸워 남을 막습니다. 비록 없고 부족해도 오히려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주도 아래 말씀으로 '성도'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고전1:2). 성도는 진리로 거짓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냅니다. 성도는 겸손으로 교만을 꺾습니다. 성도는 나눔과 섬김으로 욕망과 탐욕을 잠재웁니다. 성도는 상생과 공존의 신앙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개인주의, '취미 성향 지연' 확연 혈연 부처 인종 문화 등등의 집단 이기주의'를 잠식해줍니다. 이런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이 시대에 재현(Re-presentation)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강자들의 횡포를 막아셔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개인성화'와 '사회성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4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usa@midwest.edu E-mail : wde@midwest.edu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3일 집사 사건

‘아니? 저 새파란 김선생은 서리집사를 임명하면서 왜? 나는 집사 임명을 안하는 겁니까? 제가 나이가 작습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제직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조 선생의 격분에 찬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분은 당

시에 40대 후반의 가장이었고, 지방 고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였고, 청년부를 지도하던 교사였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을 집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제직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나는 겨우 스무살이었는데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선생이 섬섬하고 흥분할 만했습니다. 화가 가득 찬 그분은 ‘교회가 여기 밖에 없는 줄 압니까?’ 최후통첩을 날리고 문을 세계 닫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들은 신년 첫 주일에 제직원 임명을 하고 주일 밤에는 제직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조 선생은 옆 동네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제직원 헌신예배에 외부 강사가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자마자 첫 마디... ‘이 자리에 오늘 낮에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든 사람은 회개하시오!’ 본성이 온순한 조 선생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담임전도사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받아 주셨고 모든 상황은 이틀 동안에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임명받고 수요일에 사표를 냈으니 내 생애 첫 3일 집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직분은 반납했지만 오히려 흥분한 마음으로 교회 섬김에 더욱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다음 주일에 그분을 추가 임명할 줄로

알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역시 더 이상 집사임명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나를 손자처럼 사랑해주시던 담임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분을 추가 임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담임전도사님은 고개만 저를 뿐 아무 말씀이 없이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 선생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연은 공금을 횡령한 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내막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담임전도사님은 미리 알고 집사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서울 변두리 개척교회 서리집사 한 사람 임명하는데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했

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직접 여쭙봤을 때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기도해보면 안다’는 대답을 듣는 순간에 난 몸골이 송연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잘 것 없는 개척교회 서리집사 한 사람 임명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직접 지시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후에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년도 1월이 끝나기 전에 어느 직분 이든지... 직분 문제로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이 ‘3일 집사’ 사건을 참고하여 본래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진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한국의 유명한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삶을 열마진 ‘인간극장’이라는 한국의 TV프로그램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분의 ‘백년을 살아보나’라는 책에서 ‘사람이 있는 고생이 행복 했었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분이 20여년 동안 사모님이 병석에 있을 때 돌보시고, 사모님이 소천하신 후에 생신잔치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는 쉬시라는 말을 했을 때, 김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9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분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이 행복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부부가 함께 땅을 흘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신앙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민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요즘보다는 그 때가 더 마음의 행복이 있었을 때가 더 많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고, “여보, 그 때가 그리웠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김광석이 부른 노래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가끔 채플에서 말씀하시던 김 교수님의 말씀을 종종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보스턴에서 유학 중에 은퇴 후 인생을 관조하시면서 강연하시던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분이 100세를 사시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실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교수의 급여가 박봉이었을 때이지만, 책을 많이 쓰고 강연을 많이 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다 대학원까지 부양하고 출가시킨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사모님이 병석에 오래 누워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내를 오랫동안 마음을 쓰

며 돌보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아버지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하자, 그것은 ‘행복한 고생이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벨슨 만델라는 아프리카에서는 한 동네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함께 키운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온 동네 모두의 자녀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지역사회와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이만큼 우리가 성장한 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내 몸 이렇게 셋을 말씀 하셨습니다.

1월 21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M. L. King Jr.)’입니다. 33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킹 생일(1929.1.15)에 가장 가까운 월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한 날입니다. 저는 킹 데이 나 그에 가까운 날이 오면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사랑과 정의의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in Love and Justice)에 비추어서 그의 사상과 삶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킹의 비폭력 인권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Be Loved Community 아닙니까” 인류 공동체가 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삶의 첫 꼭지점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인 남아 살해 명령을 받은 ‘하루살이’라는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단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

습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은 10년-20년, 때로는 30년 전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사고와 생각의 편협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좁고 좁은 인생관을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남을 비평하고 시기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교인만, 한국인끼리 만을’ 하는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도화 된 2등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협하고, 좁은 생각만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인 자신을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잘 열려져 있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잘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을 넓히지 않으면, 다른 인종

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조류이지만, 성서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열정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책임감으로 삽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는 사명감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은 우리를 사명감 있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사명감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완성합니다. 이민 1, 2세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장으로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은 어떠한 과업을 완성하게 해주지만, 사명감만 가지고 간다면 거기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명감만 가지고는 의무감의 부담 속에서만 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감이 없다면, 어떠한 사명을 완수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감 때문에 무엇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행복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의 가치도 귀히 여기고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사명감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후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 3:18-23).

사랑으로 섬기며

(미가 6장 8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 위아래의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교감하며 나누는 뜨거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받거나 준다고 해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실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교수의 급여가 박봉이었을 때이지만, 책을 많이 쓰고 강연을 많이 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다 대학원까지 부양하고 출가시킨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사모님이 병석에 오래 누워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내를 오랫동안 마음을 쓰

존중 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넓이와 높이와 폭과 깊이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넓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정삼각형으로 하는 이상향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트라이앵글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Be Loved Community)를 이상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인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성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비폭력 인권운동을 추구하는 그의 궁극적 삶의 모형입니다.

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들 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혼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수민족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이민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종화합 잔치를 20여년 동안 해오고 10여년 이상 토요일 아침마다 먼로파크에 나가서 훌리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매년 일주일 씩 카리타스를 통하여 50여명의 노숙자의 숙식을 제공하고, ASP(애팔래치안 산골지역 사역)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은 우리의 가치관도 높여주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로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삶이 되기 쉽

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편협하기 쉽습니다. 중세의 마녀사냥, 한국의 타교인, 타교단, 타종교에 대한 극단주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여러 다른 교단들로부터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문화와 생활, 소득의 차이, 직업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 문화, 경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EM(에베레드 백인)과 다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는 그 말씀의 이해와 폭을 이러한 우리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엡5:22-33). 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행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3면에서 계속) 올해는 1월 21일이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Day’입니다. 개인의 탄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이 그의 삶을 반추하는 영광을 얻은 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더불어 마틴 루터 킹 목사 단 둘 뿐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필자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주관한 ‘제 34회 마

틴 루터 킹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회는 ‘필자와 필자가 섬기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며 동시에 다민족과 다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 공존하는 인종화합과 인권운동에 기여해

온 공로로 수상자가 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준 매우 가치 있는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봅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각기 있는 그 자리에

서 ‘개인성화와 사회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다민족 다문화와 서로 연대하여 그 지경을 넓혀 나간다면, 이 땅 위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차별 없는 하나님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

하던 시대를 뒤로 하고 사회변혁을 이끌고 가는 ‘Sign Church’가 되리라! 2019년도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pastor.eun@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10가지 및 대책(하)

지난 회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왜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되는지, 나머지 5가지의 이유들과 대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 포르노 회사들은 폰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찾고 있다

포르노 회사들은 어린이들이 포르노를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아이들이 그들의 포르노 자료를 실수로라도 접속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Dora the Explorer"와 같은 문구들로 미화시킨 후 극심한 포르노 콘텐츠에 태그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포르노를 찾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지만 확실한 것은 포르노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에 불을 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포르노 접하는 것이 너무 용이해졌다

포르노 회사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좀 더 쉽게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콘텐츠를 디지털화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침실이나 개인적(Private)인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포르노를 볼 것을 압니다. 부모가 와이파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찾기가 쉽기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포르노에 접근하려는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포르노 회사들은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 사이버상의 따돌림과 폭력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계속 따라 다닌다

스마트폰은 어른의 통제 없이 존재하는 최초의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사이버상의 따돌림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위험한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또래들이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친구들의 따돌림은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집에서 그리고 침실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일련의 자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9. 어린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

물론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 접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잘못된 대답들도 많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이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테크놀로지 중독의 치솟는 비율과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도구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10.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지극히 깊은 해가 된다

스마트폰은 종종 독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 건전한 좋은 활동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준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

론, 이런 것들은 미리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애원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즐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이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결론

과연 스마트폰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해로운 이유가 10가지만일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른들의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0-22)는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에 오히려 "악의 모든 모양을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손쉽게)"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길, '그럼 아이들이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도 있지 않냐'고 되물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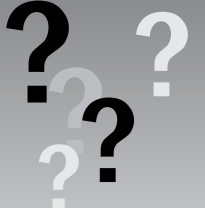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지금, 무엇보다 부모들이 24시간 아이들을 눈앞에 늘 있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좋은 영향이란 "my wish"로 끝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서 해방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tvnext.org/2019/01/smartphone-negative-effects-on-children/>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젊은 날부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50후반이 되면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결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은 선교사보다는 목회자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인도되어 지금까지 선교사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함대 대한 마음에 놀리는 부담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김 목사

A: 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내 계획과 스케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장차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께 잠깐 16장 1절과 두 가지 실례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잠깐 16장 1절은 "마음의 경연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 원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헌금 전달차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성전에서 잡혀 가이사라에서 감옥생활을 2년 하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죄수 호송선을 타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

인간이 계획 하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

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계획을 하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의 실제 두 이야기를 목사님께 도움이 되고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스왈드 J. 스미스(Oswald J. Smith)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피플스처치(People's Church)의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님은 원래는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이 병약하여 선교사로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막혀서 결국 그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선교사를 300명 이상 파송하는 선교중심의 목회를 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선교이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선교사보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7세의 한 처녀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미루고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였습니다. 3년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언니를 찾아 본 후에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집을 가보니 언니도 중병에 걸려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언니도 죽었습니다. 언니의 자녀인 조카 다섯이 남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기고 선교를 떠날까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선교지는 인도가 아니라 바로 이 고아 5명이 선교지요 이 5명의 조카들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이 제 선교 사명입니다" 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도선교의 사명을 접고 대신 조카 5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년이 지난 후에 5명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본인인 인도 선교사로 가지 못했으나 자기 조카를 3명이나 인도 선교사로 키워낸 것입니다.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보내실 곳

Rev. Sung Ho Cho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밀봉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2월 28일

제출처

1. 우편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호(Ho)



인도의 호족은 인도 내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르게 코카서스인종으로 분류된다. 그들 대부분은 인도의 북부 Bihar 지역 내 위치한 Chota Nagpur 고원의 삼림지대에서 생활한다. 호족집단은 인도의 북서부 근처에 밀집된 서부 벵갈, 방글라데시, 네팔의 일부지역과 북부 오리싸

(Orissa)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호어(Maunder어의 Lahore 방언)를 말하기 때문에 인도의 Saints족과 Mounds족처럼 Maunder어를 사용하는 종족들과 함께 집단을 이룬다. '호(ho)'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 호족은 그들의 신념에 의해 다른 민족 모두를 이방인 또는 외부인으로 여기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독립적인 때로는 독립적인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영제국, 무슬림 서부 벵갈, 방글라데시, 네팔의 일부지역과 북부 오리싸

그들의 강한 독립성은 힌두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삶의 모습

호족은 비록 그들의 30%가 힌두교 신앙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자신들을 인도 카스트제도의 일부가 아닌 구별된 종족으로 여긴다. 인도를 구성하는 78%의 힌두인과는 달리 호족은 육류를 먹고 쌀로 만든 맥주도 마신다. 호족의 문화는 자연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도의 세속적인 민족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많은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삼림환경 속에서 가장 편안하다. 식물의 뿌리, 잎, 꽃, 목초, 과일, 나무열매, 배리, 버섯, 누에고치 등이 식용, 무역용, 상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의 주요 농작물은 발효시켜 맥주를

만드는 쌀이다. 토양 밑에서 발견되는 광물의 채광은 도시 근방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초 산업이다.

촌락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료를 관리하는 족장의 지도를 받는다. 집들은 일반적으로 진흙과 야자나무 또는 다른 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진다. 한 계절의 끝 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 그들은 축제 또는 향연을 벌인다. '계약축제'라 불리는 주요 축제는 매년 추수 후에 열린다. 축제는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며 약 두 달 동안 계속된다. 새해가 될 때까지 모든 구수와 계약이 중단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결혼식도 많이 거행된다. 전통적으로 호족의 결혼은 신랑의 가족이 chari(신부의 가격)를 지불함으로써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dowry(신부의 가

족들이 신랑에게 보내는 혼수 또는 지참금)가 chari를 대신 하기 시작했다.

신앙

호족의 69%는 뱀 또는 원숭이와 마법과 신들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령과 같은 씨족의 신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주의자이다. 그들은 세상이 자연적 대상물에 존재하는 bongas(정령)로 가득하다고 믿는다. 정령들은 자신들을 달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불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와 맥주를 정령들에게 제물로 바친다. 사람이 정령을 숭배하면 그의 스승과 그 사람은 사면(shaman)이 된다. 사면은 촌락의 '수호신'에게 호족의 사업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한다. 호족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

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개발되는 인격과 성품이라고 믿는다. 그림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의 그림자는 그의 가족이 거처하는 '죽은 집'과 결합된 그의 집으로 돌아간다. '죽은 집'은 그들은 얼마나 존중했가에 따라 그 가족을 돕거나 괴롭힌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의 일부가 호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7개 선교단체가 호족 가운데 사역중이다. 호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해 신자는 단지 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더욱 뜨거운 기도와 선교활동이 강하게 요구된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크리스천 56% "인간은 본디 선한 존재"

미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등 핵심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원죄나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성격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코니에 미니스트리와 라이프웨이연구소는 지난해 실시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음주의의 기독교인 중 56%는 인간의 원죄는 작은 부분일뿐 본성은 선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도 53%에 달했다. 두 질문 모두 2년 전인 2016년 조사때보다 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아주 작은 죄라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56%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만약 하나님이 신성하지 않다면 죄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만 죄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94%가 알고 있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83%가 동의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사람들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의 잘 알려진 교리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 놓인 일부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진리인 성경적 질문들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과 복음의 담대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죄의 실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한 가지 길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청소년 66%, 20대 되면 교회 안 가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10대들의 66%는 20대가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관련 연구기관인 미국 라이프웨이연구소는 2017년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10대 때 적어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청년 중 3분의 2(66%)가 18세에서 22세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당시 23-30세 청년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2007년 조사한 결과(70%)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다. 비록만 놓고 보면 10년 전보다 청년층 감소율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교회를 안 가게 된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생활여건의 변화(96%)를 꼽았다. 교회나 목사 문제(73%)와 종교·윤리·정치적 신념(70%), 학생회 문제(63%)를 꼽은 이들은 이보다 적었다. 이는 교회를 그만두게 된 5가지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34%가 대학 진학을 뽑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들은 그다음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죄와 위선적인 모습 때문'(32%)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답했다. 이어 '교회 구성원들과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29%)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25%) '직업 및 근무 여건상 출석하기가 어려워서'(24%)를 꼽았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스킷 매코널 이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회가 설교 말씀과 믿음의 실질을 통해 청년들과 충분히 교제했다라고 젊은 청년 모두가 그런 신앙심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놓고 보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한 비율이 17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69%에 이르렀지만, 18세가 되면 58%로 떨어지고 19세에는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20대가 되면 3분의 1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회가 젊은 세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며 "외부적 요인에 상관없이 내부로부터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다운 3주 한시 해제...트럼프, 일단 퇴각

미국 역사상 최장기 첫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시한부 형식으로 일단 해결됐다. 그러나 불안한 봉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3주짜리 한시적 예산안'에 타협하며 정부 재가동에 합의했다. 상·하원은 이날부터 2월 15일까지 3주 동안만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 예산안이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35일 동안 연방정부를 마비시켰던 첫다운 사태가 한시적으로 풀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는 '21일짜리 예산안'에 빠져들었다. 대신 공화당과 민주당은 앞으로 3주 동안 상·하원 의원들로 양원 협의회를 구성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첫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의 승인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시간에 쫓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

통령의 후퇴, 항복, 패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예산 반영 없이는 섣다운 사태 해결도 없다"며 "국민 안전의 문제에 관한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론에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심의 분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핵심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추락하는 지지율과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 악재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3일 하원의장에 선출된 낸시 펠로시의 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1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한시적 봉합의 방식도 펠로시 의장이 제안했던 '선(先) 섣다운 해결, 후(後) 멕시코 국경장벽 논의' 수순과 일치한다. 펠로시 의장은 "단결은 우리의 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소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대로 물러설 분위기는 아니다. 그는 26일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은 매우 빨리 간다"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트위터 글에선 "강력한 장벽이 있었다면 캐리본(중남아메리카 이민자 행렬)이 멀고 위험한 여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벽은 세워질 것이고 범죄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축적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멕시코 장벽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합의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3주 동안의 여야 협상에 미 정부의 향방이 달려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섣다운 사태가 해결됐지만 미 연방정부가 제 기능을 완벽히 되찾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섣다운은 봉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대로 29일 열릴지는 미지수다.

영화 '말모이' 인기, 선교사 만든 '영어사전' 재조명

'사전의 재발견'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23일 이곳에 들어서자 HG 언더우드와 JS 계열 선교사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이름 아래엔 두 선교사가 1890년대에 만든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빛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기록된 영어 단어와 한글의 조합은 지금의 사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조선 땅에 현대식 인쇄소가 없던 시절, 선교사들은 일본 요코하마로 원고를 보내 인쇄한 뒤 다시 조선으로 들여와 배포했다.

언더우드는 1890년 '한영사전'과 '한영문법' 사전을 잇달아 펴냈다. 한영사전은 최초의 한영·영한사전으로 구성됐다. 한영사전 챗터엔 4910개, 영한사전 챗터엔 6720개의 단어를 담았다. 한영문법은 영문으로 된 한국어 기초 문법서다. 품사에 따라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에 입국한 지

5년 만에 이런 업적이었다. 후배 선교사들은 그가 만든 사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한글 공부했다. 초창기 조선 선교사들에게겐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필독서였다.

안교성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개신교 선교의 꽃이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초기부터 사전을 만들었고 후배들은 이 사전을 '한글 학습의 등대'로 삼았다"면서 "언어를 습득한 뒤에는 바로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조선에 입국한 뒤 3년이 지나면 한글시험을 봐야 했는데 낙제하면 무조건 귀국시켰을 정도로 강력한 한글 교육 정책을 폈다"고 덧붙였다.

고종이 한글을 우리나라의 공식문자로 선포한 것은 1894년이다. 초창기 혼란스러운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는 한글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다. 선교사들이 만든 사전은 한글이 문법을 갖춰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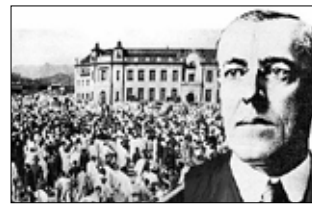
게일 선교사는 한글 전문가였다. '한영사전'(1897)과 증보본 성격을 띤 '한영대사전'(1931)을 펴냈을 뿐 아니라 번역에도 힘썼다. 1895년 최초의 한글 번역서인 천로역정, 1925년 '개일번역성경'을 출간했다.

독립신문은 1897년 4월 24일 자 기사에서 게일을 극찬했다. "조선 사람은 몇천 년을 살면서 자기 나라말도 규모 있게 배우지 못했는데 외국 교사(선교사)가 이 책을 만들었으니 어찌 고맙지 아니하리오. 조선 사람 누구든지 조선말도 배우고 싶고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싶거든 이 책을 사서 첫째 조선 글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기를 바라노라."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해 9월 시작한 기획전은 최근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 '말모이'가 개봉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회엔 1911년 집필된 말모이 원고의 원본도 전시돼 있다. 조선말 큰사전이 완간된 건 1957년이다. 기획전은 오는 3월 3일까지 열린다.

미 기독교인들 일제 핍박받는 한국인 위해 대통령에 청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의 학정으로 핍박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영명(姓名)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교수)는 미국 캔터키주 윌모어의 애즈버리대 교수와 학생, 이 지역 목회자 128명이 1919년 3월 한국을 도와달라며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영명 청원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신한민보 기사를 최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민보는 당시 재미 한인단체가 발행한 신문으로 해외동포 소식뿐 아니라 일제의 침탈 등 국내 소식도 상세히 전했다.

1919년 4월 3일자 보도된 '서양 교인들이 한국을 도움'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영명 청원서 서문과 참여한 이들,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소개됐다. 영명 청원서 서문은 "존경하는 대통령 우드로 윌슨 각하! 이 글 끝에 서명한 이들은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각하에게 청원하는 바 각하는 좋은 방편으로 한국 예수교인의 학대 받는 것을 막으시길 간청하나이다"란 표현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늘과 같이 사해형제주의를 추창하며 평화를 일심하는 때에 우리는 각하의 구원을 희망하나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는다.

힘을 소유한 교회

중세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헤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서유럽이 혼동에 빠져있을 때,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통일국가...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과연 힘을 지닌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국가 사이에 힘의 대결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고민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 이상의 힘을 지닐 때 타락하였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에 없었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힘을 상실한 교회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약 200년이 지난 뒤 1272년에 이 전쟁이 종결될 때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으며 교황의 권위 역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실한 교회의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다.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35-1303)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Unam sanctam)'이란 유명한 칙서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과연 힘을 지닌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국가 사이에 힘의 대결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고민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 이상의 힘을 지닐 때 타락하였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에 없었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벌어지게 된다.

아비뇽 유수(1309-1377)

아비뇽 유수(Avignonese Captivity, 幽囚)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간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비뇽으로 옮겨져 머무른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과연 힘을 지닌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국가 사이에 힘의 대결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고민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 이상의 힘을 지닐 때 타락하였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에 없었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다음 해였다. 혼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에서 우르반 6세(1318-1389)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프랑스 추기경들이 우르반 6세를 아나니로 초대하였으나 1303년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여 모임에 불참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과연 힘을 지닌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국가 사이에 힘의 대결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고민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 이상의 힘을 지닐 때 타락하였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에 없었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복음의 능력

오컴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1280-1349)은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버려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주장한 영국 출신 유명논리학자였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과연 힘을 지닌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국가 사이에 힘의 대결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고민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 이상의 힘을 지닐 때 타락하였다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세교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에 없었던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2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황이 힘 잃은 아비뇽 비수사건 이후 교회-국가 갈등 심화 교회가 필요 이상 힘 지닐 때 타락했다는 역사적 증거 남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당시 갈등의 관계에 놓여있던 프랑스 국왕 필립 4세(1268-1314)를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교황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의 유사하다며 '바빌론 유수(Babylonian Captivity)'라고 냉소적으로 비호아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교황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베(Conclave), 즉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 대신 교황군 지휘자였던 로베르를 대립교황으로 선출하여, 그가 자신들을 이끌 교황 클레멘스 7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사이에 힘의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존이란 구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누가 우위권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다.

1077년 카눗사의 굴욕을 기억할 것이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국가의 손에 있었으나, 교황과 다른 성직임명권을 교회의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

인간이 쌓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1095년 십자군전쟁이 시작될 때만해도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스콜라철학의 기독교 부정 주장 오컴, 종교개혁 불씨 제공 "교회는 영적 일에 중점 두고 세속 권한은 세속군주에게"

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필립 4세는 클레멘스 5세(1264-1314)를 새 교황으로 세우놓고 1309년에 교황청을 아비뇽에 두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출신의 교황과 추기경들이 대거 등장되었다.

황제 그레고리 11세가 사망한 것은 1378년, 즉 아비뇽 유수가 종식된

하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황이 오직 한 명이었으나, 이제 교황을 로마와 아비뇽 두 곳에 두는 촌극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아비뇽 유수보다 훨씬 상황이 복잡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West Coast (CA) region,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etc.,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리더십 코멘터리 (8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리더가 되라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꾼**은 **꾼**인데 **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한다. **말꾼**은 손발을 사용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일하는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trouble maker)이다. 세지 혀로 사람을 죽이는 **말꾼**은 뱀처럼 혀만 날름대며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들을 파괴한다.
영국의 총칼에 놀려 실의와 절망에 처한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간디의 한마디 말이었다. 어느 날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길에 엎드려 슬피 울고 있었다. 간디는 주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신바람 나게 만드는 리더이며 **피스 메이커** (peace maker)로서 꼭 있어야 할 존재이다. **일꾼**은 열매를 맺는다. **일꾼**은 말이 없다. **일꾼**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며 겸손하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열매 맺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숙한 리더, 쓰임 받는 리더가 되라
인간 성숙의 3단계가 있다. 비판의 단계, 비전의 단계, 섬김의 단계가 그것이다. **말꾼**이 비판의 단계라면 **일꾼**은 섬김의 단계일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며 헐뜯기** 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자. 당신은 **말꾼인가? 구경꾼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일

한하실 때가 있다. 큰 비전을 갖고 큰 영광을 주께 돌리는 리더가 되라.

삶의 목표가 분명한 리더가 되라
비전을 이루는 **비저너리**(visionary)들은 인생의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어떤 야구선수가 월드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안타를 쳤다. 이 선수가 너무 흥분해서 1루로 뛰어 간다는 게 3루 쪽으로 뛰어가다가 아웃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야구 선수는 평생 처음으로 만루 홈런을 쳤다. 너무 흥분해서 홈에 들어올 때에 홈을 밟지 않았다. 상대팀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아웃이 되어 3루타로만 인정받고 홈런은 취소되었다.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도록 애쓰고도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그것을 실천한다면 비전은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리더가 되라
당신은 지금 광야에서 목표를 상실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배신하고 떠났는가?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한 리더에게 광야는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가는 **철경이**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니 광야에 길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죽음 위기에 처한 자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늘 바라보고 큰 비전 갖고 충성해 결실 맺는 리더되길

마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손이 모자라는군요." 이 말 한 마디가 인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큰 감동을 주었다. 인도인들은 간디의 '사랑의 말'에 힘을 얻어 독립을 외쳤다. 이처럼 말의 위력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명약'이 되지만 부정적인 저주의 말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리더가 되어야 할 때이다.

꾼을 부르신다. 새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즐거운 것도 아니다. 희생이 따라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거처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꾼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마련이다. 여호수아같이 새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큰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라
비전(vision)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품는 한계가 바로 비전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하는 것인 기도의 그릇과 생각하는 것인 비전의 그릇 이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비전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와 비전의 그릇이 크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비전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에 스스로 자신을 제

인생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니 광야에 사람이 없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주셨기 때문이다.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급하게 빨리 가는 데 역주행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찔 수 없이 세상과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은 연장되고 있는 당신의 생명의 날들이 보람 있고 행복하기?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당신의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이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큰 비전을 갖고 충성하여 결실을 맺는 귀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라.
sondongwon@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명익
내과전문의

후두염

2주 이상 이유 없이 목이 쉴 때

우리 몸 어디에나 발생하는 암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다. 그런데 암이 발생하는 기관은 민족이나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대장암이나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사람들에 흔하고, 위암은 한국이나 일본, 식도암은 중국과 이란, 두경부암은 중앙아시아에 흔하다. 이런 차이는 음식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과도 관계가 있지만 유전적인 면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40대 후반의 정 모씨는 3개월 전부터 목이 쉬어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전에도 목이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항상 있어서 담배를 피워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은 더 쉬었고 아침에는 목이 더욱 잠겨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정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질병은 없었지만 직업상 고객들과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를 30년가량 피웠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 후두 내시경 검사상 후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상 후두암으로 판명 받았다. 다행이 정 씨는 초기 단계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5년째 재발되지 않았다.

두경부암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을 부르는 말인데 입술, 입안, 혀바닥, 인두, 후두, 코, 부비강에 발생하는 암을 총칭하는 말이다. 두경부암 중 가장 흔한 후두암은 40-70대 사이에서 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5대1 정도의 비율로 더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진단되는 후두암은 음주나 흡연 습관과 관계가 깊고 직업적으로 중금속이나 염색 등 화학물질을 많이 만지는 경우 후두암 발병 빈도가 증가한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도 동물에서 후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타민 A, C가 부족한 경우도 후두암 발생의 원인 인자로 생각된다.

후두는 상부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 교차하는 부위에 있는데 성대를 포함해서 성대 위아래 부분을 합쳐서 후두라고 한다. 성대는 목소리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암이 발생하면 성대가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쉰 소리가 나오게 된다. 또 종양이 성대 위쪽에 발생하면 음식을 삼키는데 이상이 오고 성대 아래쪽에 생기면 호흡곤란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후두암은 초기(1기)에 발견하면 방사선 치료와 수술로 완치율이 90% 정도 되고 성대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후두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흡연을 하더라도 타르가 적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전하다. 40대 이후의 흡연 남성이 감기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목이 쉬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후두검사를 해야 한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 2부예배: 오전 09: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원훈련: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김경),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www.nyantioch.com 188-12 23rd Ave., Fresh Meadows, NY 11366</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30분) 주일 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2(3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9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p> <p>Tel. (718)672-1150, www.kcany.org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침례기도: 매일 새벽, 저녁, 낮예배</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893-9754, 68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4> <p>담임목사: 이만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지식 vs 고백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런 선입견은 사람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서 보다 완전하고 진정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엡2:1a). 성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단정한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 영적인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영적 죽음의 실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단절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막힌 것이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즉 소통의 단절이 모든 사람이 처했던 상태이다.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는 인류가 가진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당신이 가진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범한 행위의 죄가 발생하기 이전의 문제이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은 오고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아담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 자리에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 것을 믿고 받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아담에게 내려진 명령은 곧 당신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믿음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류의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 간주되고 곧 당신이 행한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 간주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 부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고백이 필요하다. 선악과 명령이 나오는 상관이 없으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또한 나오는 별 상관이 없다. 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 한다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기독교적 활동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곧 내가 먹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없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라. 그 중차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독교에 관해서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혹 살아오는 동안에 범했던 그 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뉘우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곧 나의 행위였음을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결코 가버려 여기지 말라. 대단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동화속 이야기 정도로 가버려 여기고 기독교를 알아간다면 기독교 생활의 진도는 나가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백해무익한 일이다. 기독교의 정수는 기독교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이 얼마나 고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전인격적 고백이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들이 듣고 배우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대 학자가 있다. 그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박식한 율법적 지식을

소유한자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박식한 율법적 지식을 소유한자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자 했던 과거의 자신이 수치스러워졌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갈망하였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지식이 결코 관심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다. 만약 기독교가 사람의 잘못된 습관 몇 개를 고치거나 개선하는 것이라면 많은 지식이 충분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잘못된 습관 몇 개를 고치거나 개선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문화 하거나 혹은 어떤 ism(주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며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때문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라.



미주 CBMC 서부총회 창립총회 및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회장 황선철 장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CBMC 서부총회 창립총회 및 대회 개최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CBMC) 서부총회 창립총회 및 대회가 '비즈니스 세계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5시30분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고 총회장에 황선철 장로가 취임했다. 황선철 회장은 "CBMC는 1930년대 미국 공황시대 때 시카고의 기독교사업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인 것이 계기로 결성된 단체이며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회장은 "한국에서는 지난 1951년 한국전쟁 중 신실한 미

군 장교에 의해서 CBMC가 전파돼 기독교실업인협회가 발족됐으며 1975년에는 남가주지역에서 발족됐다"고 소개하고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 출범으로 기독교실업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강승태 회장(미주한인 CBMC 공동준비위원장) 사회로 시작, 전태일 회장(LA CBMC 지회)이 기도했으며 사회자가 창립경과 보고했다. 황선철 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CBMC 신앙고백을 했으며 황선철 회장이 서

부지역 지회장을 인준했다. 이사호 씨의 축가후 이종오 박사(클레어몬트신학교 부총장)가 '선교적 경영과 기업인의 거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총회장), 제임스안 회장(LA한인회 이사장), 서영석 박사(LA평통 회장, 대독 장병우 부회장)가 축사한 후 최희량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총회는 기존의 북미주연합의 산하 조직이던 남가주연합회(회장 황선철 장로)와 북가주연합회(회장 강승태), 서북부연합회(회장 오윤호)가 연합한 서부총회를 결성했으며 황선철 장로가 총회장에 위촉됐다. 다음은 CBMC 서부총회 지회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황선철 △수석부회장: 강승태 △샌프란시스코: 계용식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토마스김 △트라이밸리: 박성희 △스캐크라멘토: 최계영 △호놀룰루: 최재희 △시애틀: 서용환 △실리콘밸리 사무스: 한형기 △트레이시: 허정무 △LA: 전태일 △LA한인타운: 최인순 △사무총장: 신정현 △재무: 최인순. (박준호 기자)



감신대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웨슬레 신앙 본받아 복음위해 사역"

감신대 서부지역동문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역 동문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가 1월 22일 오전 10시30분 토텍스 호텔 2층 홀에서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상영 목사(부회장/카마리

오연합감리교회)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회는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정지한 목사가 '불속에서 꺼낸 숯덩이'(눅3: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나는 25세 전도

사로 강원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역경과 시련이 심했다. 그 당시 주디 선교사 내외가 개울에서 돌을 모아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여러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본받아 남은 생애 복음을 위해 사역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의 인생에도 고난과 파란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아주 적은 성령의 불씨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된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 신광섭 목사(성림감리교회), 오경환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가 특별 기도를 하고, 교가찬양을 한 후에 정영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나와 30주년 기념 음악회, 30주년 기념 논문집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를 개설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학교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개교30주년 기념행사 연다

학술세미나, 기념연주회, 논문집 발간, 간호학과 설립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또한 30주년 기념 논문집 발간하며 간호학과 신설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성진 총장을 비롯해 학과 교수진 등이 참가했다. 임 총장은 "WMU가 ABHE와 ATS 등에 정회원 인가를 받았으며 행정적으로나 아카데미한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따라서 지난 30년은 학교의 기반

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학교가 주류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을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그동안 WMU는 한국어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돼 왔다"며 "지금은 한국어 강의 외에 중국의 한족과 아프리카에서 영어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 목회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강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 1.5세대와 2세대를 위한 영어프로그램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히스패닉들과 필리핀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설명했다. WMU는 3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2월엔 세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연다.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 △12일, 14일 신학과 인문학 관련 △7월 16일 '30주년 기념 연주회' 월드디즈니 콘서트홀. 음악회는 윤임상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특별히 본교

출신 유명 뮤지션들이 출연한다. 윤 교수는 "이번 연주회는 축제, 감사, 희망,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마지막 희망의 무대는 이번 음악회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변하는 학교가 꿈의 사람 요소를 소재로 변화를 이끄는 힘을 음악을 통해 전하게 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올해 간호학과를 신설한다. 이영주 교수(간호학과)는 "RN 중에는 준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으며 학사학위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다"며 "우선 준학사학위를 소지한 RN들이 RN to BSN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는 "RN to BSN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소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18개월 정도"라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2일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5월에는 교수진 논문집을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하며 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디지털 화보집도 만든다. 디지털화보집은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볼 수 있게 했으며 e-book형식으로 볼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30주년을 기점으로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 내 타인종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학교 행정과 수업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의: (213)388-1000 (박준호 기자)

향후 2년 100명이 100만 달러 기금조성 목표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대학발전위원회 출범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총장 제프리 판 박사) 대학발전위원회 출범식이 22일 오후 6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대학발전위원회는 앞으로 2년에 걸쳐 100여 명으로 구성돼 100만 달러의 대학후원기금을 조성, 학생들의 학비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종오 부총장은 "많은 유능한 한인신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미래의 경건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로 배출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대학원과 한인교회를 잇는 교량 역할과 재정적 후원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영 만찬과 학교 소개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박성환 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려 총장 제프리 판 박사의 인사, 이종오 대회협력 부총장의 한인장학기금(Korean Endowment Fund)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판 총장은 "올해 CST는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424명의 등록학생수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로부터 모인 현명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담대한 학생들이 CST의 유산과 사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장은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신학교육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며 "한인학생들은 CST 커뮤니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원들이다. 따라서 CST가 지속적으로 한인커뮤니티와 든든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한인 장학기금 모금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 총장이 대학발전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민 목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김용민 목사는 남가주지역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김찬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의 격려사, 김용민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2019년 봄학기에 입학한 3명의 한인학생인 김영희 오세진 공문영 씨가 장학증서를 받았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1885년에 설립된 신학중심 명문대학원이며 1884년 조선왕실을 설득하여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선교의 유희를 받아냈던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가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전신인 맥클레이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다. 맥클레이 신학교는 남가주대학교(USC)의 일부가 됐으며 1950년대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독립해 나오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문의: (909)549-0260 kef@cst.edu (박준호 기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대학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유럽목회연구원 제 26차 세미나

유럽목회연구원(원장 한평우 목사) 제 26차 세미나가 4월 29일(월)부터 5월 4일(토)까지 “서바나를 향한 바울의 비전”(롬15:23-24)이라는 주제로 스페인 말라가(Malaga)에서 열린다. 강사는 송태근 목사, 윤병이 목사, 이성근 목사 심하보 목사, 노한우 목사, 최정권 목사. 세미나 후 옵션여행이 5월 1일 오후부터 말라가 시내 자유 투어, 2일 모로코 투어, 3일 알람부라궁과 주변 투어 진행된다.

▲문의: locielo88@naver.com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가 2월 18일(월) 감람원 수양관(2300 Sound Ave, Calverton)에서 열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라는 주제로 강사는 나광삼 목사(위싱턴 큰무리교회 담임). 회비는 20달러이며 1월 31일(목)까지 선착순 40명 제한. 차편은 당일 오전 7시 30분 노던 156가 한아름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문의: (718)888-0788



KAPC 가든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인내로 새 힘 얻는 한해 되자”

KAPC가든노회 신년하례예배, 로봇다리 김세진 형제 간증도

뉴욕일원의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노회 중 마지막으로 가든노회가 1월 28일 오전 11시 뉴저지성도교회(허상회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재호 목사(부노회장) 인도로, 기도 박해창 목사(회록서기),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부서기), 설교 허상회 목사(노회장), 간증 로봇다리 김세진 형제와 어머니 양정숙 집사, 통성기도, 축도 이원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새 힘을 얻는 새해”(사40:29-31)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올 한 해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여유를 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새해가 되자”며 “그래서 여호와의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교회들이 부흥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조성훈 목사가 △미국과 조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박형기 목사가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들을 위해 제목으로 기도했다.

축도 후 이종식 목사(서기)의 광고가 있었으며, 김지희 목사의 식사기도 후 만찬이 이어졌다.

이어 윗놀이와 선물교환 등 친교가 있었으며, 오종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가든노회는 3월 5일(화) 오전 뉴욕제일장로교회에서 정기노회를 개최한다.

(기사제공: KAPC 가든노회)

강직함과 부지런함 김동욱 발행인

복음뉴스 창간 2주년 기념식

인터넷 기독교언론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 bogeum-news.com)가 창간 2주년을 맞아 1월 24일 저녁 뉴저지 새 언약교회(김종국 목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너 참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살았지!”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복음뉴스를 시작할 때 개별적인 후원이나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존립하고 있다”며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이 되겠다. 여러분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까마귀가 되어 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념식은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 사회로, 경배와 찬양 러브뉴저지 찬양팀(인도 박종윤 목사), 기도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 성경봉독

윤석래 장로(뉴저지장로연합회 회장), 특송 이동숙 집사(뉴저지우리교회), 설교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봉헌기도 정광희 목사(뉴저지영광장로교회), 봉헌특송 김성욱 집사(새언약교회), 환영사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복음뉴스를 말한다’ 한은경 사장(CSN 사장), ‘복음뉴스에 바란다’ 김남수 목사(야가페장로교회), 축사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 회장)와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복음뉴스와 김동욱 목사를 위한 기도 이병준 목사(한길교회), 인사 김동욱 목사, 광고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 축도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 식사기도 김주현 목사(뉴저지지구촌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춘길 목사는 에스더 4장 13-17절을 본문으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2019년 봄학기 개강부흥회 첫날 집회를 마치고 참석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동부개혁장신 봄학기 개강부흥회, 강사 여운세 목사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19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는 주제로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렸다.

강사 여운세 목사는 첫날 “낡은 언약과 새 언약”(히8:7-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뼈대, 성경의 기본 진리인 언약의 세 종류를 설명하겠다”며 “창조주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속언약’, 순종이 필요한 ‘행위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언약’을 기억하고 사역자로 부름 받은 직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날 부흥회에서는 김성국 학장이 장학증서와 교훈패를 수여했으며, 이사회 및 동문회에서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동문회 회장 이종태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여 목사는 둘째 날 “중생의 비의”(고전12:12-13), 셋째 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행:4-8)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동 신학교는 개강부흥회와 1월 30일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치고 2월 첫 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유원정 기자>

성령·사랑으로 하나되고, 말씀·기도로 건강하게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 2019 신년하례 감사예배

2019년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1월 21일 오후 6시 뉴욕어린양교회(박윤선 목사)에서 열렸다.

백한영 감독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기해년 돼지해에 대해 지적하며 “돼지꿈은 황재하는 꿈이고, 황금을 돈을 상징한다. 황금돼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는 현대 한국인의 이상”이라며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황금돼지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강조했다.

지역회 회장 이지용 목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됨 △사랑으로 하나 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영적으로 건강 등 교회 성장의 3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교회들의 존재의 이유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고 신년사를 전했다.

예배는 한기술 목사(서기) 인도로 찬양 김영준 목사(호산나교회), 기도 이종현 목사(뉴욕선교회), 성경봉독 김동규 목사(뉴욕반석교회), 특송 유진웅 교수(뉴욕갯세마네교회), 설교 이지용 목사(회장), 신년 축복 합심기도 최명호 목사, 이병수 목사(뉴욕복음선교회), 위촉패 전달과 후원금 전달, 헌금기도 안성룡 목사(기쁜우리교회), 헌금특송 이종서 정찬복 전도사, 광고 한기술 목사, 축도 윤태섭 목사(뉴욕

하늘샘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지용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2천여년 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합심 통성기도는 △조국과 미국을 위해 △뉴욕복음화와 교계를 위해 △총회와 지역회와 각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회장 이지용 목사는 오는 4월 뉴욕에서 열리는 C&MA 한인총회 준비위원장으로 박윤선 목사를 임명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게 된다.

후원금은 독고훈 선교사, 김연준 목사(호산나교회), 윤태섭 목사(러브미션), 아멘넷에 전달했다.

예배 후에는 김윤근 목사의 진행으로 윗놀이 대회가 진행됐다.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에는 19개 교회와 29명의 교역자들이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C&MA동부지역회>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 2019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음뉴스 창간 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학생찬양경연대회, 찬양합창제,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임원 및 2019년 사업발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신년 임원회를 지난 1월 21일 정오에 뉴욕에 위치한 다블트리호텔에서 갖고 임원 발표 및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현미 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강민석 부회장이 기도했으며 전현미 회장이 시편 104:33과 로마서 8:28-30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만찬시간을 가진 후 열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신년 첫임원회를 마치고 협회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린 3부 신년계획은 전현미 회장이 임원진 소개, 김혜정 회계가 이월금 보고, 전현미 회장이

분과소개 및 2019년도 협회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협회사업 일정은 △8월 31일 학생찬양경연대회 △9월 29일 찬양합창제 △10월 27일 창작성가의 밤 △11월초 총회.

2019년도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전현미(라구나힐스교회) △부회장 강민석(감사한인교회) △총무 랜디김(생수의강선교회) △회계 김혜정(가나안교회) △웹사이트 전요셉(생수의강선교회) △작곡분과 조성원(남가주사랑교회), 황현정(미주영광교회) △합창분과 박신실(나성영락교회) △학생분과 윤진영(열린교회) △기악분과 오윤정(충현선교회). <박준호 기자>



나침반 교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각각, 함께, 성령으로 가는 길”

나침반교회, 김성국 목사 초청 주일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초청 예배를 1월 27일 주일예배시간에 가졌다.

민경엽 목사는 26일 저녁에 있었던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식을 언급하며, 강사 김성국 목사를 소개했다. 또 광고 시간에는 신문사 직원들을 소개하며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상을 보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하는 신문”이라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는 1부(오전 8시)와 2부(오전 11시) 예배시간에 강사로 나서 ‘우리 가는 길’(왕하 6:1-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는 머무르는 종교 좁은데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며 ‘네 시작은 미약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광대한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고 “하나님의 사람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 각각이다. 각각의 헌신 필요하다. 우리들 각각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함께이다. 지도자와 제자들은 함께 가야 한다. 손에 손 잡고 함께 나가면 어느 것도 두려울 것 없다. 우리들의 손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부활의 손이 있다. 함께 비전을 이뤄야 한다. 셋째, 하나님나라를 향해 갈 때 각각과 함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성령을 회복해야 한다. 성령이 없으면 길모양뿐이다. 따라서 각각, 함께,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글로리아시어스(퀸즈장로교회)의 특송은 나침반교회 본당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찬양의 은혜를 끼쳤다.

이날 예배는 김성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 소사이어티가 LA지부 첫번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유튜브 채널 개설 SNS 활동 본격 돌입

소망소사이어티 LA지부 첫 '자원봉사자교육' 실시

소망소사이어티가 LA지부를 개소하고 첫 번째 행사 '자원봉사자 교육'을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사무실에서 열었다.

이날 교육의 내용은 소망소사이어티 소개(최경철 사무총장), 인사말씀(유분자 이사장), Well-Dying교육(죽음준비교육, 남궁수진 간사), 자원봉사의 가치와 자원봉사자의 역할(김미혜 사무국장), Well-Aging교육(치매, 최경철 사무총장)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다양한 소망소사이어티의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유분자 이사장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자원봉사자님들의 열심에 감사한다.

그 열정을 통해 소망소사이어티가 LA에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부탸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SNS 활동에 돌입했다. 이 채널의 내용은 한 달에 한 번 소망뉴스를 통해 지난달의 소망행사와 프로그램을 보고 하고, 다음 달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는데 MC는 최경철 사무총장과 남궁수진 간사.

소망소사이어티 LA지부는 3030 W Olympic Blvd. # 217, LA(VIP 플라자, 213-908-5034).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Tbt-SnsVc-oL6hEEzmQ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지역 주민 필요에 귀 기울일 것”

새생명비전교회 입당 감사예배

새생명비전교회가 27일 오후 4시에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강준민 목사는 “성도들의 수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당이 완공될 수 있었다”며 “저희 교회와 관련은 없지만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금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고 말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강준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입당감사예배는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있었으며 김성근 장로가 기도, 벤자민신 EM 담임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케빈 히긴스 박사(윌리엄캐리 국제대학교 총장)가 “The

Next Stage of the Journey’(수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건축 및 축하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전영식 장로와 오정수 장로가 건축경과보고를 했으며 윤성원 목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축사 및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미치 오펜펠 LA시의원이 축사했으며 감사패 전달, 그리고 본 교회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시간, 그리고 베트남 선교사 파송식으로 이어졌다.

파송식이 마친 후 본 교회 교육부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했으며 이병희 목사(나성세계복음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초기 정착 위한 케어팩 후원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지나 박 한인가정상담소 이사가 후원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위탁아동 초기정착위한 케어팩 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 150개 조성, APP에도 전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위탁가정 아이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0시30분 가정상담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위탁아동들이 친가정에서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신발도 못 신고 나오거나 쓰레기봉투에 간단한 소지품만 싸서 집을 나와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소지품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동하게 된다. ‘위탁아동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필수용품으로 구성된 가방이며, 연령별, 성별로 총 10종류로 만들 예정이다.

캠페인은 1월 22일부터 시작됐으며 3월 1일까지 전개된다. 모금은 비영리단체 기부금 모금 사이트 ‘크라우드 라이즈(crowdrise.com)’를 통해 모금하며 ‘위탁아동 케어팩’ 사이트가 개설된 사이트(www.crowdrise.com/care-pack)를 통해서 개인 후원이나 단체 후원을 할 수 있다.

후원 금액은 위탁아동 케어

팩 150여개를 만들기 위한 구입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이며, 3월 9일 오전 10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50개의 케어팩 가방을 함께 만들 예정이다.

위탁아동 케어팩 일부는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위탁아동에게 일부 전달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아동보호국 산하 APP(Asian Pacific Project) 유닛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위탁가정 프로그램은 LA카운티 내에서 한인 위탁가정은 한곳도 없다는 연락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인뿐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등 타 아시아 커뮤니티와도 함께 하며, 현재 위탁가정서비스는 오렌지카운티까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후원캠페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kfamla.org) 또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AML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문의: (213)235-4848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효사랑 시니어대학 개강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2019년 시니어대학(학장 과사무엘 목사) 봄학기 2월 5일(화) 오전 9시 개강한다. 5월말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과목씩 수업한다. 힐링댄스, 찬양운동, 음악교실, 난타교실, 한지공예, 성경과 노래, 생활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강의, 탁구교실, 건강검진 등이 오픈된다. 등록비는 월 30달러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323)737-0691, (562)833-5520

복음통일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가 주최하고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가 주관하는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복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라는 주제로 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사랑의빛선교회에서 열린다.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이상명 교수(미주장신대 총장), 천기원 목사(두리하나 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강성진 선교사(극동방송),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송원 선교사(크로스 선교회 상임연구원), 이승중 목사(한인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요한 목사(GMS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며 임현수 목사, 이정훈 목사, 이승중 목사가 저녁집회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425)775-7477, (626)744-9191

새소망장로교회 신년부흥집회

새소망장로교회(담임 박장순 목사) 신년부흥집회가 2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월 8일(금), 저녁 7시30분, 2월 9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2월 10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15분.

▲문의: (626)577-0191

기쁜우리교회 설립2주년 기념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 2주년 기념예배가 2월 10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818)662-0400

미주성결교 남서부지방회 정기지방회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정기지방회가 2월 4일(월) 오후 4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문의: (626)858-830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말씀성회가 2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이며 일정은 1일(금)과 2일(금) 저녁 7시30분, 3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 6시.

▲문의: (213)749-4500



선미나스트리 및 GMAN 선교카페 오픈기념 2019년도 1차 선택정기포럼에서 최찬영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강사에 최찬영, 박기호, 이재환, 김종국, 이청

선미나스트리/GMAN 선교카페 오픈기념 선택정기포럼

선미나스트리/GMAN은 하하선교회 오픈기념 2019년도 1차 선택(선교박람회) 정기포럼을 1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졌다.

이날 오전 포럼에서 최찬영 선교사는 “기독교 생활 전체가 선교가 첫째라는 의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날까지 3만여 명만 선교사 파송개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파송개념을 갖게 되면 파송교회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선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는 ‘동서양의 선교역사에서 본 동역사의 특징’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선교운동에 4가지 요소, 역사적 상황적 요소가 있다”며 “신적 요소에는 신학적 돌파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가정서비스는 오렌지카운티까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후원캠페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kfamla.org) 또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AML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문의: (213)235-4848 <박준호 기자>

이어 ‘소중함교회의 선교동원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재환 선교사(컴미션)는 “선교가 무섭다는 말이 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교회다. 교회가 선교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며 “교회가 선교사 파송개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파송개념을 갖게 되면 파송교회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선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교사는 “우선 전교인을 ‘무릎선교사’로 만들어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선교’로 한사람이 한주일 1분을 선교비로 내게 한다. 세 번째는 선교에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신학적 변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공동파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회 파송’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찬 후 열린 오후 강연은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라는 주제로 김종국 선교사가, ‘은퇴교수들의 황금기 선교사 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청 선교사가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 1위는?

교회성장연구소, 2019 교인인식 설문조사

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회다움·목사다움·성도다움'을 꼽았다.

27일 교회성장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30일 전국 50개 교회 청·장년 성도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32.1%가 이같이

에 응답자 21.4%는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도와달라'는 17.1%였다.

이어 기도생활 발전(15.4%)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14.6%) 성도간

'교회다움·목사다움·성도다움' 32.1%
영성·예배·전도 회복(12.0%) 뒤이어

응답했다. 두 번째는 영성·예배·전도 회복(12.0%)이었다. 이어 세속화, 본질(각 6.6%) 하나됨(6.3%) 기도·회개, 교회불신(각 5.4%) 구제·사랑, 동성애 분별력(각 4.6%), 다음세대(4.0%) 소통(2.9%) 순이었다.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교제, 불우이웃 돕기(각 9.4%) 교회 주인의식(6.3%)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은혜경험(6.1%) 등으로 답했다.

올해 한국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응답자 18.4%가 '신앙'이라고 답해 가정(13.6%) 건강(11.9%) 재정(11.2%) 교회직원(10.7%)을 앞섰다.

또 진로·직업·직장(8.8%) 꿈과 비전성취(7.9%) 여가·취미·휴식(6.0%) 이성·연애·결혼(5.8%) 친구 및 교육관계(5.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는 경제·일자리·빈부격차(22.4%) 이념 및 세대 갈등(17.3%) 안보·북한(12.4%) 정치(12.1%) 개인주의(7.3%) 동성애(6.4%) 교육(6.1%) 통일(5.5%)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김형근 교회성장연구소장은 "한국교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회다움·목사다움·성도다움'을 꼽은 것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픈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기독교 종교자유 침해·월권행위"

동반교연 국회도서관서 포럼, 한동대 문제학생 관련...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학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상과 벌은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학에선 문제 학생에게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면서 "한동대의 경우 학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매춘 다자성에 강화를 개최한 학생의 해명을 듣고 실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징계 권한 남용이나 월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법원처럼 판결문 형태를 모방해 한동대에 문제 학생의 무기정학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매춘 다자성에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업무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시민단체의 일이다. 국가인권위가 다자성에 옹호를 존재이유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한동대와 숭실대가 입는 피해, 종교교육의 자유는 부인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한동대와 숭실대가 지금 겪는 수난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인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의 존재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종교자유마저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교수는 "통제장치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국가인권위가 과연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

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자성애자의 인권은 옹호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를 두둔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기독교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됐던 숭실대의 건학이념을 지키겠다"고 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학생 지도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기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 소속된 종교자유수호 한국교회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종립학교를 표적으로 삼은 악의적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직분, 활동 분야와 성별 등을 기재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김창준(1888-1959) 목사의 경우 감리교 소속으로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해 경성에서 활동했다. 18세 때 세례를 받았고 1910년 평양 숭실중학교, 14년 숭실전문학교를 각각 졸업했다. 중앙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경성형무소에 투옥됐다. 해방 이후엔 좌익계에서 활동하다 48년 월북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김 목사처럼 월북한 인사의 경우 일간지나 노동신문 등을 참고해 북한에서의 행적도 소상히 기록했다.

이순자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은 70여년간 북한 교회 복원을 사모하는 남한 그리스도인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온 북한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전을 집필하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 교회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 기도한 뒤 표지석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판되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분단이전 北 기독교기록 모은 사전 나온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교회·교계 기관·인물 총망라 올해말 발간

분단 이전 북한지역 교회와 병원·학교 등 기독교 기관, 이북 출신 기독교 인물을 총망라한 사전이 올해 말쯤 발간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교회 복원을 위한 초석을 놓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김승태)는 분단 이전 북한지역 교회와 기독교 기관, 인물을 한데 모은 '북한기독교사전'을 집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작업 중인 이 사전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이북에 존재했던 교회와 기독교 단체·기관, 외국인 선교사 및 이북 출신 목회자 등 인물의 인적 사항과 관련 사건이 모두 수록된다.

사전 내용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하) '야소교장로회 연감' '연회록' '총회회의록' '기독교신보' '조선총독부 관보' 등 원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중이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 등 박사급 연구인력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집필이 완료된 북한 교회와 인물의 항목은 4185개다. A4 용지로 3351장 분량이다. 연구진

은 오는 12월 출판을 목표로 장로교와 감리교를 제외한 교단의 교회 및 기독교 기관과 인물 200여 항목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연구소는 집필이 마무리되면 총 4400여 항목이 수록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에 수록될 북한지역 교회 항목엔 이름과 소속 교단뿐 아니라 이칭(異稱)·별칭(別稱), 설립연도, 주소, 설립자, 관련 사건까지 정리돼 있다. 일례로 황해도 재령군 재령면 국화리에 주소를 둔 서부교회는 장로교 소속으로 1916년 설립됐다. 22년엔 397㎡(120평) 부지에 42칸 규모의 2층 양옥 예배당을, 25년엔 12칸 규모의 기와집에 유치원을 세웠다. 32년엔 교회학교 학생 등이 급우 운동에 나서 '금주단연선전표어'가 적힌 전단을 시가에 배포했다. 31년엔 교회 남녀면려회가 형편이 어려운 재민(만주) 동포를 돕기 위해 구제 활동을 펼쳤다. 임역권 황은근 김두현 최성곤 오덕인 목사가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인물 항목에선 생몰 연월일과 출생지, 거주지, 교회

3월 1일 서울광장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교회 연합기관·단체 하나 돼 치른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태화복지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한국교회기념대회의 개요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기념대회가 오전 11시 찬양축제를 시작으로 3·1운동의 기독교적 의미 소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의 태극기 만세행진, 만세삼창, 3·1절 노래 제창,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복음설교, 한국교회 결의문 발표 등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한장총)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연합기관(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한장총)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연합기관(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한장총)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미래목회포럼

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연론회 등 200여개의 교계 기관도 참여한다. 준비위원장은 정성진 거북한빛운정교회 목사와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윤보환 인천 영광감리교회 목사가 맡았다.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 설치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기념대회가 3·1운동의 정신을 성찰하고 현재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와 연합기관, 각 교단이 하나 된 모습으로 기념대회를 치러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는 민의 벗어"

바른군인권연구소·정직운동본부, 대체복무제 관련 포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법안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만큼 복무기간을 늘리고 지뢰 제거, 유해발굴로 복무분야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무법안은 교도소에서 36개월을 근무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들에게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형집행법상 교도관의 업무가 아니라 수행자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병역회피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업무는 물품보급 등 교도관을 보조하

는 허드렛일이 될 것"이라면서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현역 복무와 복무강도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변호사는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 업무야말로 좋은 들지 않는 평화적인 대체복무"라고 주장했다.

복무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 변호사는 "종교적 병역회피자의 근무기간을 36개월로 밝혔는데, 국방부 안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24개월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단축될 공군 현역 복무기간(22개월)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종교적 병역회피자를 두둔하는 국제기구 권고논리와 여호와의증인 교리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임천영 전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일부 시민단체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체복무기간이 현역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1.5배가 되면 위법이라는 국제기준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2배 이상인 핀란드 러시아 폴란드 등은 모두 위법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가 되려면 반드시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과 현역군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와의증인 탈퇴자 A씨는 "여호와와의증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적국으로 여기는 교리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병역회피에 따른 처벌을 사탄의 박해로 여기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하는 이들을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장합동총회장, 마틴루서킹재단 특별공로상 수상

이승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이 미국 마틴 루서 킹 재단의 특별공로상과 LA 카운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예장합동은 27일 "소이 총회장이 20일(현지시간) 에릭 가세트 LA시장과 함께 의회 의장상을 받았으며, 마틴

루서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로부터 한국 기독교계 대표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다민족 사회를 위해 힘써준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면서 "소이 총회장이 20일(현지시간) 에릭 가세트 LA시장과 함께 의회 의장상을 받았으며, 마틴

총회장과 소 목사는 수상 다음날 LA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거리에서 50만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퍼레이드 선두차량에 탑승해 행사를 축하했다. 미국은 비폭력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서 킹 데이'로 지키고 있다.

한기총 새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투표 218표 중 121표...첫 기자회견부터 현 정부 공격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전광훈(63)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강경보수 성향인 전 목사는 반(反) 문재인정부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주요 교단 및 연합기구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 목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기총 총회에서 218표 중 과반수인 121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한식 한사랑선교회 대표표는 95표에 그쳤다.

전 목사는 기독교자유당을 창당하고 이끄는 인물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대규모 강경보수 성향 집회를 이끈 이력이 있는 만큼 한기총 노선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 목사는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부터 현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하는 사상가로 통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을 폄했다"면서 "그렇다면 선생을 존경한다는 말인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던 점을 살펴봤을 때 간첩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내 생각엔 간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비판이 억울하다면 TV나 유튜브에 나와 공

개토론을 하고 전 국민 앞에서 '나는 절대 간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건국됐으며, 핵심은 기독교를 통한 국가건설"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선교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교회의 권위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탈퇴자 오픈채팅방 주의보

탈퇴자 다시 미혹하고 탈퇴 고민 신도 색출 정황 포착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익명성을 이용해 신천지 탈퇴자들에게 또다시 접근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익명 채팅 기능인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신천지 탈퇴자를 다시 미혹하거나 탈퇴를 고민하는 신도들을 색출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A씨(20)는 지난주 오픈채팅방

에서 30여명이 속해 있는 '신천지 위로방'에 접속했다. A씨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교회에 출석했지만 탈퇴 이후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오픈채팅방을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채팅방 상단에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끼리 불안감을 위로해주는 곳"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표시돼 있었다.

선교의 창 (117)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중국선교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

선교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중국에서 떠나고 있다. 추방을 당한 자, 미리 겁먹고 발을 뺀 자 등 다양하다. 남아 있는 자들도 숨죽이며 관(官)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뛰어들었건만 불과 사반세기 만에 선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참에 중국선교의 궤적을 돌아보며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 대신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이 전쟁의 부정확한 수단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2. 중국의 정치 사조에 대한 이해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4자 성어를 통해 통치이념을 제시해왔다. 덩샤오핑(鄧小平 1978-1989) 주석 때에는 “도광양회(道光養晦: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가 외교정책의 기조가 됐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불필요한

우리는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종교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종교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관리형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세계종교연구소 쥘신핑(卓新平) 소장은 2015년 3월 “중국민족보(中國民族報) 신문에 기독교의 중국화 3요소를 언급했다. 그것은 중국정치에 대한 인정(對中國政治的 認同), 중국사회에 대한 적응(對中國社會的 適應), 중국문화에 대한 표현(對中國文化的 表達)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독교가 중국에서 서구의 문화를 벗고 중국화되어

1. 중국의 근대 역사에 대한 이해

중국의 근대사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아편전쟁이다.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하며 ‘무역항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840년에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1842년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난징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홍콩 섬을 할양받았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강제적으로 개항시켰다.

1856년 발발한 제2차 아편 전쟁은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의 개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청나라를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저들은 텐진조약 체결 후에도 청나라의 후속 조치가 미진하자 진격을 계속해 1859년에 수도 베이징 근처까지 이르렀다. 1860년에는 별공인 원명원을 약탈하고 불질렀다. 결국 베이징 함락 후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은 종결되었다.

문제는 이때 선교사들이 아편 상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

대의 마찰은 줄여야겠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장쩌민(江澤民 1989-2002) 주석은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유소작위(有所作為: 필요한 역할은 한다)”로의 변신을 하였다.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의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2002-2012) 주석 시기에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우뚝 선다)”가 나왔다.

그럼 지금의 시진핑(習近平 2012-현재) 주석 때에는 무엇인가? “주동작위(主動作為: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G2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국력성장에 비례해 점차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왔다.

3.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이해

중국 선교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그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 참에 우리는 중국선교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배어있다. 실 예로 중국불교는 인도 불교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불교가 인도에서 유입될 때 인도문화를 벗겨내고 중국불교인 선종(禪宗)을 창시하며 중국화를 완성했다. 따라서 중국 기독교도 중국 체제와 특색에 맞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의 중국화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과 중국의 발전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일, 민족단결, 종교간 화목, 사회안정수호에 조응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중국 리더십 안목으로 보는 평가

그간 중국에서의 기독교 선교는 공과(功過)가 있었다. 공이라면 아무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

개로 인도하며 교회를 세운 것들이다. 그러나 빛 못지않게 어두움이 있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아편전쟁을 일으키며 타 국가와 민족을 침탈할 수 있던 말인가? 유감스럽게도 근대 중국역사에 서구 기독교 세력들은 늑대와 같은 것을 앞 다투어 자행해왔다. 그때 군대와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중국지도자들은 말한다. 종교가 개인에게 복락을 제공하고 소망을 준 것은 좋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는가? 시간이 흘렀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하고 서구문물을 받아들였다. 자연히 여러 형태의 선교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의 안목으로는 국가통치차원에서 선교가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고 중국화 된 기독교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겠다.

맺음 말

작금에 중국에서의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다. 나름대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땀 흘려 수고했던건만 현지 리더십과 나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밀려 나가고 있다. 무슨 연고인가? 이는 과거의 선교역사와 현재 정부정책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때에 우리는 염려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역자들은 가능한 집회를 절제하며 조용히 주의 일꾼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바람이 세계 불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나아가 이참에 우리는 중국선교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교회를 단순히 선교대상 국가로 보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 이제 중국선교(Mission in China)에서 선교중국(Mission with China)으로 패러다임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

jsong007@hanmail.net

기도/칼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박헌수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기도에는 응답의 메아리가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대담해 주신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작은 신음이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러면 열어주신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박대하시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조건 문제에만 매달려 기도하면 안 된다. 머리에 온통 기도제목만 가득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차서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복적인 기도는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도 없고 자기 필요에만 매달려 하는 기도이다. 종교적인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도 없고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목표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이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제목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기도를 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떠올라야 한다.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임으로 시인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점점 내 안에 점점 커지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만나게 되고 열려대신 오히려 감사가 되고 평안이 깃드는 것이다.

기도하면서도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는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자. 급할수록 안타까울수록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bible6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Dr.,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영, 위, 찬양부: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	살렘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영, 위, 찬양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4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4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40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영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이학준 교수 이상명 교수 천기원 목사 윤학렬 영화감독 강석진 선교사
플러신학교 미주장신총장 두리하나대표 '철가방 우수씨외 다수' 극동방송대북설교

주관교회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총무간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역사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 (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세계선교 - "남북통일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 송원 선교사 (Cross선교회 상임연구원)
문화와 영상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렁이 등)
통일신학교육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탈북사역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북한지하교회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디아스포라 -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통일의 전략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 (사)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교일보, 기드온동족선교

영어로 보는 성경 (4)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 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Exodus 6:6]

(6) "Therefore, say to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WORD & IDIOM

* bring A out from B: B에서 A를 끌어내다. *yoke: 멍에, 굴레 *free A from B: B에서 A를 자유롭게 하다. *redeem: 구속(救贖)하다. *redeem A with B: B를 통(사용)하여 A를 구속하다. *outstretched arm: 펼친 팔 *mighty acts of judgment: 심판의 강력한 행동

GRAMMAR

(5) Moreover, I have heard the groaning of the Israelites, whom the Egyptians are enslaving, and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더욱이 내가 이집트인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Therefore, / say to the Israelites:

그러므로 이스라엘(사람들, 백성)에게 말하라 위의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모세에게 (:) 이후 아래의 내용을 말하라는 명령형 문장이다.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나는 주(主)다 그리고 나는 ~ 할 것이다 ~ (under 이하 내용)에서 너희(복수)를 이끌어내다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의 무거운 짐 아래서 => 나는 주(主)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의 무거운 짐 아래서 너희를 이끌어 낼 것이다.

6절 말씀에서의 조동사 will은 '~ 할(V) 것이다', '할(V) 예정이다' 등의 의미로 미래에 행할 자신의 의지를 담고 있다. will 다음의 동사는 항상 원형이다.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나는 ~ 할 것이다 ~에서 자유롭게 하다 그들에게 노예가 된 것 =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나는 너희를 그들의 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and(1)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그리고 나는 (with 이하의 내용)을 통하여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펼친 팔

and(2)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그리고 심판의 강력한 행동으로 = 그리고 나는 펼친 팔과 심판의 강력한 행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and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둘째 and는 with로 이끄는 두 개의 전치사구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STUDY & THOUGH

■ 구속하다(redeem)에서 구속(救贖)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한 가문의 사람이나 재산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속의 개념은 노예의 몸값(ransom)과 관련된다. 즉 팔려간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진정한 성취를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는가? 그렇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죽었고, 신약이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지금도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후의 영원한 삶을 향한 떠남이다.

"Jesus came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이라도(왕상8:41-42)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의 기도응답 자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광대한 이름"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패신 팔"은 오늘도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화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왕상8:43)

하나님께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온 세상 만민까지도 다 구원하셔서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이보옵소서(왕상8:44-45)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 먼 곳에 가야 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에 못나오는 이유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보낸 길로 나갈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나 적국과 싸우러 갔을 때 성전에 오지 못할 사정이지만 그 때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섭기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잠시 출장을 갔을 때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기도하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온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목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왕상8:46-53)

하나님께서서는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범죄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범죄했더라도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목할 것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니다. 우리를 세상만민 가운데서 구별해주셔서 주의 백성이 됐고 주의 산업(영원한 소유 상속 재산)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늘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금 은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왕상8:54-56)

본문은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마친 후 축사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먼저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 건축될 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평"은 "안식"이라는 뜻인데 "평안"과 "침"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

두 정복한 후에 처음 쓴 말인데 그 당시에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천막에서 48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태평세월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때에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왕상8:57-60)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26장과 신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다 이뤄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해 봉헌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

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정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늘 성전에 나올 때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동부구 영우로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2)197-8383~9, Fax. (02)19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예멘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2)426-318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9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매일-토) Tel. (02)1253-1004, Fax. (0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14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로동 121 (강남) (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Tel. (82)2-3142-6080, Fax. (82)2-3148-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842-6881, Fax. (02)18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청북도 청주시 서흥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식

2019년 1월 26일 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1월 26일 LA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다.



사장으로 취임한 김성국 목사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이임사]

진리의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문서선교지로 지경 확대되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령 1715호에 이르기까지 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1982년 김순영 목사님에 의해 LA에서 이단을 대처하는 기독교언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때는 격주로 발행하였으나 1992년 본인이 인수한 후부터 주간 발행을 하였습니다.

복음전파를 사명을 위하여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를 사시로 지난 37년 동안 발간하여 매주 전 미주와 40여 개국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모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 개최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28회 계속하여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위해 헌신한 신문사 직원들과 구독자들, 이 신문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후원자들 그리고 주옥같은 글을 기고해주신 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목회자로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으로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을 후임 사장으로 모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고 이단 사설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파수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신문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속되는 문서 선교지로 그 지경이 더욱 크게 확대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후 2019년 1월 26일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선교중창단 '글로리아싱어즈'가 축송을 부르고 있다.



그레이스 트리오가 설교후 화답연주를 하고 있다.



이취임식 행사장 입구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역사를 알리는 사진들이 전시됐으며 축하 화환들이 대거 배달됐다.

[취임사]

기록 · 참여 · 혁신하기 위해...



첫째,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니까 미주의 크리스천 지도자와 성도, 각 기관과 가정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민교회와 이민자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우리 자신과 선교지, 다른 지역과 다음세대에게도 유익과 도전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는 '히즈핑거(His Finger)'라는 문화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말씀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이요, 구원의 손가락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히즈핑거 출판사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참된 문화를 만들고 구원과 위로의 글을 쓰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셋째,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민 1세대 어른들이 열어 가신 길은 참으로 귀한 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과거를 잘 수용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발전과 혁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문사가 이 시대에 혁신의 길을 가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우리 신문사의 힘만으로는 그 일, 할 수 없고,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후 2019년 1월 26일 김성국 목사

[공동 취재팀]



사회 이동진 목사



기도 김현인 목사



설교 민경엽 목사



축사 조명환 목사



축도 양수철 목사



광고 김원도 장로



식사기도 송정명 목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